

제371회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7 호

국회사무처

2019년10월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된 안건

- o 의원(정은혜) 선서 및 인사 1
- o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 김현수) 인사 2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2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
- 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10

(10시03분 개의)

국회의원 정은혜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문희상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정은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혜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입니다.

저에게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존경하는 이수혁 주미대사님께도 힘찬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제게 허락된 시간 8개월 동안 하루를 1년과 같이 생각하며, 많이 듣고 공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배워서 남 주고 별어서 남 줘라’ 이 말씀은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 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지난 20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미혼모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o 의원(정은혜) 선서 및 인사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 11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정은혜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은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은혜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혜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그렇게 자라 오면서 저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이 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 ‘은혜’는 값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간 받은 그 은혜를 값 없이 돌려 드릴 때입니다. 이 시대에 여성과 청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자유와 정의, 평화와 민주, 바른 미래의 가치를 더불어 실현해 나가는 진정한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굳이 일류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안 하고 살기 힘들고 분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는 세상’, 이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3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습니까?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은혜를 갚는 국회의원 정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정은혜 의원, 썩 잘하셨어요. 의장보다 낫습니다.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 김현수) 인사

(10시09분)

○의장 문희상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고견을 구하고 국회와도 긴

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우리 국

회에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2016년 1차 촛불시민혁명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여의도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김성태·김영우·심재철·정의화·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열세 분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덮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계슈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 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변경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 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고 분명하다는 점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

당과 반드시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저는 반드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합니다.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우리 국회에게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공존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정시에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신속처리안건의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요건을 갖춰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우리는 시급히 대답해야 합니다.

이런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반복적으로 뒤집어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도 그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만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 나가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 검증과 공개 정책 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 데 국회만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벽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당은 당당히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반대로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입시와 입사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

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그곳에서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출발은 우리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고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전수조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그 핵심 원인입니다.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책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우리 국회의 역할은 크고 중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는 시급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긴급한 경제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 두고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 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9만 7000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 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상용직 일자리 수도 두 달 연속 대폭 늘어나 상용직의 비중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함께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중견기업이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 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 1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 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이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 국회가 다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민생 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20대 국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두려운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존의 경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솔직히 잘하지 못했고 현실 정치로부터의 관성과 난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는 대신, 누구를 다시 탓하기 전에 그래도 공존의 정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신념만큼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고, 남과 북이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서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존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공존의 경제를 향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하며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한일 경제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

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이미 벌어졌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법인세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에 속하는 740개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법인 이익 중 5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에 속하는 66만 개의 기업의 이익은 불과 12%에 머물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일 경제전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 경제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겨 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그 극일의 길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응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부는 연 2조 원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쏠아 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역설적이게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민하게 활동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지원했고 중소 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8년 벤처 투자 3조 4000억 원, 펀드 조성 4조 6000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어느새 유니콘 기업은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 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이 노골화된 현시점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시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인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융자 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 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000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고 2000억 원이 넘는 세제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 갱신 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쟁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 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게 먼저 촉구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자영업을 한국 경제의 중추 중 하나로 인식해 비상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맹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본사 갑질의 악순환부터 단호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 주고 대형 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협력의 풍토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함께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 지원도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예산 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 자영업에 총 5조 원 규모의 신규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 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

상공인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둘째,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 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에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에 재편해야 합니다.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노사 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도 일관되게 지속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관철,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후진적 임금구조 대개혁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하고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의 변화를 이루면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제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으로 연합이 다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농어촌 지역을 낙후된 곳으로 남겨 두서는 안 됩니다. 미관이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자유한국당에게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예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은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1980년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배우고도 덜 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잠자리, 불확실한 일자리, 불공정한 교육 기회는 우리 청년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런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들겠습니다.

희망을 배신한 정치를 향한 그들의 정당한 분노에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끈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이제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융자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황을 유예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 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료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인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빗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정성에서 다시 찾아 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해서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장애, 육아,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미세먼지 없는 누구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확실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민생안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대책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줄었고 보장성은 높아졌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36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분명했고 대응 방향은 적절했습니다. 정부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은 그 비율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가계비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의 통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도 여야가 함께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을 마무리하는 것도 당연한 과제입니다.

국민안전 대책 수립 역시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가습기살균제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처리도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법과 성차별·성희롱금지법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형량을 강화해서 불법 아동음란물 퇴치를 위한 전면전도 우리 국회는 불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방위원회를 통한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 국회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두려운 심정입니다. 우리는 민생본위의 국회를 21대에 다시 만들 수 있는 그 씨앗만큼은 남길 수 있는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 ‘민생이나, 정쟁이나’ 우리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 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최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우리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IMF 때보다 힘들고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얘기를 우리는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직 월급으로만,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딱 한 번만이라도 충실합니다.

20대 국회를 정말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 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이 제안에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의장 문희상 이인영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55분)

○의장 문희상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
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안을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윤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
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
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한·영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 발생 시
에도 한국, 영국 양국 간 한·EU FTA에 따른
기존 교역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조치적 성격
의 FTA로서 원칙적으로 한·EU FTA 협정문을
승계하되 협정 대상이 EU 회원국들에게서 영국
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세율 할당, 원산지 등 일
부 기술적 조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영국의 브
렉시트 이후 과도기적 기간 동안 양국 간 무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동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수출
기업들이 브렉시트를 전후하여 통관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영국 측에 통관절
차 간소화 등을 요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
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대
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1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상도	권미혁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규환
김동철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중로	김철민
김태년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김광수	김규환	김도읍	김동철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여영국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대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윤관석	김종민	김종석	김종훈	김중로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영일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이규희	이만희	이상민	이상헌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용주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인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걸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박주현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전재수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진해철	진혜숙	진희경	정동영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은혜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정인화	정재호	정점식	정종섭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정진석	정춘숙	제윤경	조경태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지상욱	안호영	어기구	염용수	여상규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여영국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최인호	추경호	표창원	한정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홍일표	홍철호	황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기권 의원(2인)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박주현	이동섭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출석 의원(286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은혜	정인화	정재호
정점식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철호
황주홍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246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박인숙	박재호	박정근	박주민
박주현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훈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석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여영국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상돈
이상민	이상현	이석현	이양수
이용주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중구	이중명	이중배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은혜	정점식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철호
황주홍	황희		

○산회 시 재석 의원(236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상도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김경협, 김동철, 김병관, 김상훈, 김성수, 김순례, 김영진, 김정우, 김종민, 김태년, 김현권, 도종환, 민경욱, 박광온, 박범계, 박완수, 박정호, 박홍근, 변재일, 설훈, 손혜원, 송언석, 신경민, 신창현, 심재철, 안호영, 염동열, 우원식, 유동수, 유승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이동섭, 이석현, 이용호, 이장우, 이종명, 이찬열, 이춘석, 이현승, 이훈, 장병완, 전해철, 김관영, 김두관, 김병기, 김상희, 김성식, 김승희, 김정재, 김종석, 김한정, 나경원, 맹성규, 민병두, 박대출, 박병석, 박완주, 박주민, 백승주, 서삼석, 성일종, 송갑석, 송영길, 신동근, 심기준, 안규백, 어기구, 원혜영, 유민봉, 유의동, 윤영석, 윤종필, 윤후덕, 이만희, 이양수, 이원욱, 이재정, 이종배, 이채익, 이태규, 이현재, 인재근, 장석춘, 전혜섭, 기광수, 김무성, 김병욱, 김석기, 김성원, 김영우, 김영호, 김정호, 김중로, 김한표, 남인순, 문진국, 민홍철, 박덕흠, 박선숙, 박용진, 박주현, 백재현, 서영교,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보라, 심상정, 안민석, 엄용수, 오영훈, 위성곤, 유성엽, 윤관석, 윤영일, 윤준호, 이개호, 이상민, 이언주, 이은권, 이정현, 이주영, 이철규, 이학영, 이혜훈, 임이자, 장정숙, 전희경, 김경진, 김규환, 김민기, 김부겸, 김선동, 金成泰, 김영주, 김재원, 김종대, 김철민, 김해영, 노웅래, 문희상, 박경미, 박명재, 박성중, 박재호, 박찬대, 백혜련, 서형수, 손금주, 송석준, 송희경, 신용현, 심재권, 안상수, 여영국, 우상호, 유기준, 유승민, 윤상직, 윤일규, 윤한홍, 이규희, 이상헌, 이용주, 이인영, 이종걸, 이진복, 이철희, 이학재, 이후삼, 임종성, 전재수, 정동영

정병국, 정우택, 정인화, 정진석, 조경태, 조정식, 지상욱, 최경환, 최운열, 한정애, 홍의락, 정성호, 정운천, 정재호, 정춘숙, 조배숙, 조훈현, 진선미, 최교일, 최인호, 함진규, 홍일표, 정세균, 정유섭, 정점식, 정태옥, 조승래, 주광덕, 채이배, 최도자, 추경호, 홍문표, 홍철호, 정용기,정은혜, 정중섭, 제윤경, 조응천, 주승용, 천정배, 최연혜, 표창원, 홍영표, 황희

○청가 의원(7인)

김수민, 김종희,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조원진, 홍익표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의사국장, 유인태,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외교부장관 강경화, 통일부장관 김연철, 국방부장관 정경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환경부장관 조명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출석 정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오수, 법무부차관(장관직무대행) 김오수,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손금주	조배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2019. 10. 24.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정유섭	이학재	자유한국당	2019. 10. 22.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서영교·김철민·김경협·김상희·박찬대·신경민·송갑석·설훈·서삼석·신창현 의원 발의)

10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천정배·여영국·장정숙·정춘숙·장병완·박지원·윤영일·최경환·유성엽·황주홍 의원 발의)

10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유승희·김정우·박선숙·박정·윤후덕·이석현·이종걸·이찬열·정세균·최운열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유승희·김경협·김동철·송영길·송옥주·이석현·이종걸·이찬열·주승용·최운열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김정우·김영진·김경협·김정호·이개호·강병원·김두관·이종걸·박정·유승희·이용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유승희·최운열·이종걸·이석현·윤후덕·김경협·정세균·김정우·박선숙·박정·이찬열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김정우·김영진·김경협·김정호·이개호·강병원·김두관·이종걸·박정·유승희·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10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 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신보라·임이자·장석춘·유재중·홍철호·김성원·추경호·이명수·민경욱·김종석·송희경·이양수 의원 발의)

10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이상민·이용득·기동민·어기구·강창일·소병훈·박정·위성곤·이종걸·노웅래 의원 발의)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유승희·송옥주·이찬열·이종걸·이석현·송영길·김동철·김경협·최운열·주승용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서영교·정재호·김철민·김경협·김상희·박찬대·신경민·이찬열·송갑석·설훈·신창현·서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조경태·김경진·강석호·임이자·박인숙·정태욱·김세연·김수민·김기선·金成泰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한선교·강효상·김기선·金成泰·김석기·김정재·김학용·민경욱·염동열·추경호 의원 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이동섭·장병완·이찬열·주승용·金成泰·정인화·유동수·박주선·김세연·안규백·조웅천·신용현·김병관·임종성·김영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서영교·정재호·김철민·김경협·김상희·박찬대·박정·신경민·이찬열·송갑석·서삼석·신창현 의원 발의)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김순례·조훈현·김성원·권성동·

박명재 · 홍문표 · 추경호 · 원유철 · 김광림 · 정유섭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유승희 · 김정우 · 박선숙 · 박정 · 윤후덕 · 이석현 · 이종걸 · 이찬열 · 정세균 · 최운열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서영교 · 정재호 · 김철민 · 김경협 · 김상희 · 박찬대 · 신경민 · 이찬열 · 송갑석 · 설훈 · 신창현 · 서삼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서영교 · 정재호 · 김철민 · 김경협 · 김상희 · 박찬대 · 박정 · 신경민 · 이찬열 · 송갑석 · 설훈 · 서삼석 · 신창현 의원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윤종필 · 황영철 · 임이자 · 김세연 · 김성원 · 김영우 · 원유철 · 이명수 · 송기현 · 이철규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김상희 · 이규희 · 윤일규 · 기동민 · 장정숙 · 박명재 · 정춘숙 · 윤소하 · 인재근 · 김병기 · 최재성 · 황주홍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김상희 · 신창현 · 기동민 · 이규희 · 김영호 · 인재근 · 윤소하 · 맹성규 · 정춘숙 · 한정애 의원 발의)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신창현 · 김상희 · 박홍근 · 변재일 · 서영교 · 설훈 · 송옥주 · 윤준호 · 이석현 · 이용득 · 한정애 의원 발의)

10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유승희 · 김경협 · 송영길 · 이석현 · 주승용 · 이찬열 · 이종걸 · 송옥주 · 김동철 · 최운열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서영교 · 정재호 · 권미혁 · 김철민 · 김경협 · 김상희 · 박찬대 · 박정 · 신경민 ·

이찬열 · 송갑석 · 설훈 · 서삼석 · 신창현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윤관석 · 안호영 · 김철민 · 박재호 · 김정우 · 신동근 · 윤호중 · 박홍근 · 이후삼 · 조응천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강효상 · 문진국 · 신보라 · 김동철 · 송옥주 · 이용득 · 임이자 · 윤한홍 · 이양수 · 송희경 · 김규환 의원 발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김성태 · 김성원 · 윤재욱 · 강석호 · 이은재 · 김영우 · 이만희 · 이채익 · 홍문표 · 안상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오제세 · 박덕흠 · 이명수 · 임재훈 · 김수민 · 이종구 · 유승희 · 김광수 · 강길부 · 이채익 의원 발의)

10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함진규 · 이현승 · 홍철호 · 곽대훈 · 강길부 · 홍문중 · 김성원 · 김승희 · 윤종필 · 이은권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김성찬 · 성일종 · 이명수 · 홍철호 · 경대수 · 박성중 · 金成泰 · 이양수 · 박완수 · 김태흠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조승래 · 김태년 · 백재현 · 서영교 · 이상헌 · 이석현 · 이후삼 · 정세균 · 정재호 · 최인호 의원 발의)

10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임이자 · 김학용 · 윤종필 · 원유철 · 문진국 · 김승희 · 장석춘 · 박명재 · 김용태 · 정태욱 의원 발의)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민홍철 · 안규백 · 김정호 · 고용진 · 이동섭 · 정인화 · 윤영일 · 서삼석 · 이개호 · 정성호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3. 민홍철 · 김진표 · 이동섭 · 정인화 · 윤영일 · 서삼석 · 이개호 · 정성호 · 이종걸 · 도종환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민홍철 · 안규백 · 김정호 · 이동섭 · 윤영일 · 서삼석 · 이개호 · 정성호 · 이종걸 · 서형수 · 김병기 · 윤일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전혜숙 · 안규백 · 윤후덕 · 홍익표 · 박홍근 · 정인화 · 신경민 · 민병두 · 김철민 · 박정 의원 발의)

10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김성원 · 경대수 · 이은권 · 김정재 · 김순례 · 이현재 · 이명수 · 성일중 · 권성동 · 윤종필 · 김선동 · 김태흠 · 김재원 · 김학용 · 여상규 의원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3. 이양수 · 김규환 · 김명연 · 김석기 · 김성원 · 김현아 · 이만희 · 정유섭 · 추경호 · 홍철호 의원 발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3. 윤준호 · 최인호 · 서삼석 · 신창현 · 전재수 · 박재호 · 오영훈 · 송영길 · 김두관 · 윤관석 · 박완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3. 맹성규 · 기동민 · 도종환 · 박찬대 · 서영교 · 송갑석 · 윤소하 · 이용득 · 전해철 · 표창원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기동민 · 이후삼 · 윤일규 · 김상희 · 정세균 · 인재근 · 정춘숙 · 송갑석 · 제윤경 · 조응천 의원 발의)

생애마무리 지원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김상희 · 서형수 · 인재근 · 김경우 · 기동민 · 윤소하 · 김영춘 · 원혜영 · 이규희 · 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3. 이양수 · 홍철호 · 김명연 · 김성원 · 정유섭 · 추경호 · 김규환 · 이만희 · 김석기 · 김현아 · 김성찬 · 이철규 · 권선동 · 염동열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3. 김성태 · 김성원 · 윤재옥 · 권성동 · 강석호 · 이은재 · 김영우 · 이만희 · 홍문표 · 안상수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강효상 · 문진국 · 신보라 · 김동철 · 송옥주 · 이용득 · 전현희 · 이정미 · 임이자 · 성일중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김해영 · 송갑석 · 정재호 · 김병관 · 정세균 · 김두관 · 이훈 · 김종민 · 박광온 · 최인호 · 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김부겸 · 백재현 · 송갑석 · 박재호 · 박찬대 · 윤호중 · 장정숙 · 원혜영 · 김영춘 · 권칠승 · 전재수 · 인재근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김진표 · 유동수 · 김병관 · 김병기 · 이찬열 · 안규백 · 민홍철 · 박광온 · 정세균 · 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신경민 · 송옥주 · 홍익표 · 전혜숙 · 권칠승 · 서영교 · 신창현 · 인재근 · 진선미 ·

정춘숙 · 표창원 · 송갑석 의원 발의)

10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4. 조응천 · 송옥주 · 권칠승 · 이동섭 · 신창현 · 최인호 · 이상현 · 서삼석 · 이종걸 · 이후삼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조응천 · 금태섭 · 임종성 · 이동섭 · 신창현 · 송갑석 · 원혜영 · 안호영 · 이종걸 · 이상현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4. 조응천 · 송갑석 · 기동민 · 원혜영 · 송옥주 · 조승래 · 김철민 · 최재성 · 최인호 · 서삼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김경협 · 김영진 · 김정호 · 한정애 · 강훈식 · 정춘숙 · 이용득 · 유승희 · 송옥주 · 최인호 · 임종성 · 김정우 · 민병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4. 홍철호 · 김재경 · 정갑윤 · 송언석 · 정태욱 · 김선동 · 김석기 · 성일종 · 권성동 · 정중섭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4. 홍일표 · 엄용수 · 장정숙 · 이종배 · 김승희 · 정유섭 · 권성동 · 정갑윤 · 김석기 · 주광덕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4. 이인영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은혜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김정우 · 김경협 · 서형수 · 이용득 · 김철민 · 원혜영 · 임종성 · 김성수 · 백재현 · 김상희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이철희 · 이종걸 · 김병기 · 이상현 · 최재성 · 김성수 · 고용진 · 박주현 · 김종민 · 김삼화 · 조응천 · 정은혜 · 조배숙 · 안규백 · 권칠승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4. 오제세 · 도종환 · 황주홍 · 원유철 · 임재훈 · 김두관 · 박덕흠 · 이명수 · 강길부 · 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7건 10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4. 최인호 · 이학영 · 이상현 · 안호영 · 김경협 · 박재호 · 전재수 · 백재현 · 김해영 · 윤준호 · 권칠승 · 조응천 의원 발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여영국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여영국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 김종대 · 박주현 · 김광수 · 김경진 · 정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2019. 10. 24. 정부 제출)

10월 2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4. 조응천 · 송옥주 · 권칠승 · 이동섭 · 신창현 · 기동민 · 조승래 · 이규희 · 이상현 · 서삼석 · 이종걸 · 이후삼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김성원 · 경대수 · 권성동 · 김선동 · 김순례 · 김재원 · 김정재 · 김태흠 · 김학용 · 성일종 · 여상규 · 윤종필 · 이명수 · 이은권 · 이현재 의원 발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윤준호 · 최인호 · 권칠승 · 이상현 · 전재수 · 오영훈 · 신창현 · 서삼석 · 서형수 · 박재호 · 김정호 · 박광온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윤준호 · 최인호 · 서삼석 · 권칠승 · 이상현 · 전재수 · 오영훈 · 신창현 · 서형수 · 박재호 · 김정호 · 박광온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최인호 · 이학영 · 이상현 · 안호영 · 김경협 · 박재호 · 황희 · 전재수 · 백재현 · 김해영 · 윤준호 · 조응천 의원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이인영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은혜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윤일규 · 정춘숙 · 서영교 · 안호영 · 이석현 · 김철민 · 김병기 · 이규희 · 기동민 · 안민석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4. 윤일규 · 서영교 · 김철민 · 안호영 · 정춘숙 · 송기현 · 이석현 · 김병기 · 이규희 · 기동민 · 안민석 의원 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4. 윤일규 · 정춘숙 · 신동근 · 서영교 · 안호영 · 이석현 · 김철민 · 김병기 · 이규희 · 기동민 · 김상희 · 안민석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이후삼 · 고용진 · 노웅래 · 박홍근 · 백재현 · 송옥주 · 안호영 · 윤관석 · 조승래 · 조응천 · 최인호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김태년 · 한정애 · 송갑석 · 이용득 · 서형수 · 설훈 · 신창현 · 김두관 · 김해영 · 박광온 의원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여영국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 김종대 · 장정숙 · 이용득 · 김종훈 · 서형수 의원 발의)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이후삼 · 고용진 · 노웅래 · 박홍근 · 백재현 · 송옥주 · 안호영 · 윤관석 · 조승래 · 조용천 · 최인호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박홍근 · 박정 · 신창현 · 기동민 · 윤준호 · 김철민 · 김상희 · 박찬대 · 박완주 · 이규희 · 김병기 · 김정호 · 이학영 · 최재성 · 서영교 · 우원식 · 안호영 의원 발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윤영일 · 임종성 · 안호영 · 김현권 · 변재일 · 이원욱 · 김동철 · 김경진 · 박지원 · 장병완 · 주승용 · 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박홍근 · 맹성규 · 신창현 · 권철승 · 이규희 · 박찬대 ·정은혜 · 백혜련 · 김영춘 · 기동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윤일규 · 신동근 · 서영교 · 안호영 · 이석현 · 김철민 · 김병기 · 이규희 · 기동민 · 안민석 · 김상희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박범계 · 고용진 · 김정우 · 박정 · 백재현 · 오영훈 · 이규희 · 임종성 · 위성곤 · 홍익표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박선숙 · 박지원 · 김관영 · 인제근 · 김삼화 · 김종희 · 유승희 · 권철승 · 채이배 · 고용진 · 송희경 · 원혜영 · 전해숙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박범계 · 백재현 · 임종성 · 홍익표 · 이규희 · 위성곤 · 김정우 · 고용진 · 오영훈 · 박정 의원 발의)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 ·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천정배 · 장정숙 · 채이배 · 장병완 · 김광수 · 윤영일 · 김종희 · 유성엽 · 박지원 · 정인화 · 황주홍 · 윤소하 · 최경환 · 강창일 · 심상정 · 한정애 · 전해숙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곽상도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권성동 · 김광립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성태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백승주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학재 · 이현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점식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욱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주호영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곽상도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권성동 · 김광립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김성태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백승주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학재 · 이현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점식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욱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주호영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백재현 · 신창현 · 송갑석 · 김종민 · 정재호 · 정은혜 · 최인호 · 이후삼 · 권칠승 · 정세균 의원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이장우 · 이동섭 · 이은권 · 신상진 · 김승희 · 백승주 · 유재중 · 김명연 · 정양석 · 이만희 · 송언석 · 한선교 · 임이자 · 김기선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백재현 · 고용진 · 신창현 · 송갑석 · 정재호 · 조승래 · 강훈식 · 최인호 · 민병두 · 이후삼 · 기동민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박홍근 · 맹성규 · 신창현 · 권칠승 · 이규희 · 박찬대 · 정은혜 · 백혜련 · 김영춘 · 기동민 의원 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조웅천 · 원혜영 · 안호영 · 신창현 · 송옥주 · 김철민 · 최인호 · 서삼석 · 추미애 · 윤영일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조웅천 · 원혜영 · 안호영 · 신창현 · 송옥주 · 김철민 · 이규희 · 최인호 · 서삼석 · 윤영일 · 박병석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조웅천 · 안호영 · 신창현 · 송옥주 · 김철민 · 최재성 · 이규희 · 최인호 · 서삼석 · 윤영일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윤관석 · 김철민 · 고용진 · 박찬대 · 박홍근 · 위성곤 · 윤후덕 · 이학영 · 최인호 · 이후삼 · 전해숙 의원 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이종배 · 광대훈 · 추경호 · 장석춘 · 김성찬 · 이현재 · 성일종 · 홍일표 · 김규환 · 이동섭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박홍근 · 윤관석 · 이후삼 · 조웅천 · 안호영 · 서형수 · 최재성 · 이용득 · 김철민 · 박재호 · 서영교 · 신창현 · 전해숙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서영교 · 신창현 · 신동근 · 윤일규 · 김정우 · 맹성규 · 조승래 · 정은혜 · 서형수 · 정재호 · 윤준호 · 박완주 · 서삼석 · 김경협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박대출 · 金成泰 · 장정숙 · 김석기 · 김정재 · 김태흠 · 김재경 · 김선동 · 민경욱 · 정유섭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서영교 · 신동근 · 윤일규 · 김정우 · 맹성규 · 조승래 · 정재호 · 윤준호 · 박완주 · 서삼석 · 김경협 의원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서영교 · 신동근 · 맹성규 · 조승래 · 서형수 · 정재호 · 윤준호 · 박완주 · 서삼석 · 김경협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서영교 · 신동근 · 맹성규 · 조승래 · 서형수 · 정재호 · 윤준호 · 박완주 · 서삼석 · 김경협 의원 발의)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서영교 · 신동근 · 윤일규 · 김정우 · 맹성규 · 조승래 · 서형수 · 정재호 · 윤준호 · 박완주 · 서삼석 · 김경협 의원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박광은 · 김영주 · 송갑석 · 김진표 ·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 김해영 · 윤관석 · 정재호 · 신경민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서영교·신창현·신동근·윤일규·맹성규·조승래·정은혜·서형수·정재호·윤준호·박완주·서삼석·김경협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조응천·이동섭·신창현·김성수·맹성규·최인호·이규희·장정숙·송영길·추미애·서삼석 의원 발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박광온·김영주·송갑석·김진표·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해영·윤관석·정재호·신경민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박광온·김영주·송갑석·김진표·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해영·윤관석·정재호·신경민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조응천·송갑석·기동민·원혜영·송옥주·조승래·김철민·최인호·서삼석·추미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박광온·송갑석·김진표·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해영·윤관석·정재호·신경민 의원 발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9. 10. 25. 정부 제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권칠승·설훈·윤준호·안호영·정세균·신창현·고용진·김철민·박광온·조승래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권칠승·안호영·정세균·고용진·박선숙·박홍근·김진표·신창현·박광온·홍영표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정재호·박광온·전재수·최인호·최재성·이철희·김정호·김경협·서영교·이찬열·윤준호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오영훈 · 인재근 · 송영길 · 이개호 · 우원식 · 정인화 · 이찬열 · 황주홍 · 윤준호 · 안호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25. 정재호 · 전해숙 · 이찬열 · 이후삼 · 김병기 · 설훈 · 이철희 · 전재수 · 박광온 · 서영교 · 윤준호 의원 발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오영훈 · 인재근 · 송영길 · 이개호 · 정인화 · 이찬열 · 황주홍 · 윤준호 · 홍영표 · 안호영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김수민 · 이찬열 · 김중로 · 정병국 · 김무성 · 임재훈 · 김정재 · 金成泰 · 임이자 · 최연혜 · 주광덕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대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정대욱 · 김상훈 · 김광림 · 유동수 · 정중섭 · 장병완 · 정유섭 · 김종민 · 안상수 · 박덕흠 · 이주영 의원 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김도읍 · 주호영 · 김기선 · 추경호 · 정갑윤 · 김태흠 · 김진태 · 김석기 · 주광덕 · 최연혜 의원 발의)

이상 5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19. 10. 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19. 9. 4.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9. 30. 이인영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대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이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헌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웅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9. 30. 이인영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대섭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채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성호 · 정세균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용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4일 발의자 철회 요구

○심사기간 지정

2020년도 예산안

(2019. 9. 3. 정부 제출)

10월 23일 정보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 전까지로 지정함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0년도 예산안

(2019. 9. 3. 정부 제출)

10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보 제외)에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기간을 10월 28일 10시 까지로 지정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 9. 3. 정부 제출)

10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범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 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환경노동 · 국토교통 · 여성가족)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기간을 10월 28일 10시까지로 지정함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 9. 3. 정부 제출)

10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 ·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환경노동)에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예비심사기간을 10월 28일 10시까지로 지정함

○청원 제출

국회의원들의 막말, 장애인 비하발언 퇴출 요청에 관한 청원

(2019. 10. 25. 김주현으로부터 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2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의견서 제출

실업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의견표명 결정문

(2019. 10. 24.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보고서 제출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9. 10. 24.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록으로 보존함)